



보도 일시	2022. 2. 4.(금) 09:00	배포 일시	2022. 2. 4.(금) 09:00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승태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홍 (lsh0622@korea.kr)

'22.1월 소비자물가 동향

◇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기준 '21.12월(3.7%)보다 0.1%p 낮아진 3.6% 상승(전월비 0.6% 상승)

○ 2개월 연속 0.1%p 하락하여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

□ 1월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^{석유류제외}·개인서비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, 농축수산물·석유류 오름폭은 축소되며 전년동월비 3.6% 상승

(%)	'21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2.1
전년동월비	0.9	1.4	1.9	2.5	2.6	2.3	2.6	2.6	2.4	3.2	3.8	3.7	3.6
전월비	0.7	0.5	0.3	0.1	0.1	0.0	0.2	0.5	0.4	0.2	0.5	0.2	0.6

○ (농축수산물) 정부의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(20.4만톤) 공급 등으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모두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 축소(전년동월비, ('21.12월)7.8→('22.1월)6.3%)

* 전년동월비(%,'21.12→'22.1월) : (농산물)5.4→**4.6** (축산물)14.7→**11.5** (수산물)0.7→**0.5**

* 주요품목(전년동월비, %,'21.12→'22.1월) : (파)△18.2→△**37.3** (양파)△22.7→△**31.7** (사과)△15.1→△**16.1**

○ (석유류) '21.12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월비가 하락*(△1.1%)하고 기저효과도 완화**되면서 오름폭 큰 폭 축소(24.6→16.4%)

* 두바이유(\$/b): ('21.11)80.3 (12)73.2 ('22.1)83.5 / 휘발유(원/L): ('21.11)1,737 (12)1,646 (**'22.1)1,631**

** 석유류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): ('20.12월) △12.7% → ('21.1월) △8.9%

- (공공서비스) 전기·가스요금 1분기 동결 등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 등으로 상승폭 유지(0.9→0.9%)
- (개인서비스) 원재료비·최저임금 인상 등 반영, 실손보험료 요율조정 등 연초 가격인상으로 외식·외식제외 모두 오름폭 확대(3.4→3.9%)

* 주요품목(전년동월비, %, 12→1월): (생선회(외식))8.9→9.4, (보험서비스료)9.4→13.4

품목별 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	전기가스 수도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외	
				석유류	가공식품							
12월	전년동월비	3.7	7.8	4.7	24.6	3.8	1.4	2.0	0.9	3.4	4.8	2.5
	(기여도, %p)	-	(0.7)	(1.6)	(0.9)	(0.3)	(0.0)	(0.2)	(0.1)	(1.1)	(0.6)	(0.4)
1월	전년동월비	3.6	6.3	4.2	16.4	4.2	2.9	2.1	0.9	3.9	5.5	2.8
	(기여도, %p)	-	(0.5)	(1.4)	(0.7)	(0.4)	(0.1)	(0.2)	(0.1)	(1.2)	(0.7)	(0.5)
	전월비(%)	0.6	1.8	0.1	△1.1	0.5	0.4	0.1	0.8	1.0	1.0	1.0
	(기여도, %p)	-	(0.2)	(0.0)	(△0.1)	(0.0)	(0.0)	(0.1)	(0.3)	(0.1)	(0.1)	(0.2)

-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*(농산물·석유류 제외)는 오름폭 확대(2.7→3.0%)

*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로 전체 458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구성

(전년동월비, %)	'21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2.1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1.2	1.2	1.4	1.6	1.5	1.5	1.8	1.9	2.0	2.8	2.4	2.7	3.0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0.7	0.6	1.1	1.2	1.2	1.1	1.3	1.3	1.4	2.3	1.9	2.2	2.6

- 생활물가지수*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폭 축소(4.6→4.1%)되며 2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

*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

* 전년동월비(% '21.12→'22.1월) : (식품)6.2→5.5 (식품이외)3.7→3.2

* 주요품목(전년동월비, %, '21.12→'22.1월): (휘발유)21.0→12.8 (경유)26.6→16.5

- 신선식품지수*도 채소류 가격 안정 등으로 상승폭 축소(6.7→6.0%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

* 전년동월비(% '21.12→'22.1월) : (신선어개) 0.9→0.7 (신선채소) 9.9→2.1 (신선과일) 7.5→13.8

(전년동월비, %)	'21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2.1
생활물가지수	0.8	1.7	2.1	3.1	3.4	3.0	3.5	3.3	3.1	4.6	5.2	4.6	4.1
신선식품지수	9.2	17.8	15.2	14.1	11.1	8.0	4.6	△0.9	△4.6	△7.8	5.6	6.7	6.0

□ 1월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, 공업제품^{석유류제외} 등 상승압력이 확대되었으나, 농축수산물·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 영향은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 소폭 둔화

* 1월 품목별 물가기여도 변화: (농축수산물) $\Delta 0.12\%p$, (석유류) $\Delta 0.29\%p$
 ('21.12월 대비) (개인서비스) $0.14\%p$, (공업제품^{석유류제외}) $0.11\%p$

① '21.12월에 이어 1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농축수산물·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 영향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

* 물가상승률 중 공급측요인 비중(% , 전년동월비, 12월→1월): 43.8 → **33.5**

▪ (농축수산물) 「설 민생안정대책」 등 정부의 성수품 가격안정 노력* 등으로 과거 평균보다 전월비 오름세가 둔화**된 결과 '21.12월 대비 물가기여도 축소('21.12월 $0.67\%p$ → '22.1월 $0.55\%p$)

* '16대 성수품+쌀'의 가중치(42.0)가 농축수산물 전체 가중치(83.5)의 50.3% 차지
 ↳ 16대 성수품 및 쌀 가격은 성수품 공급(1.10~28일) 기간중 1.4% 하락(통계청)

**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(% , 전월비): ('22.1월)**1.8** (과거5년평균)2.4 (과거10년평균)2.5

▪ (석유류) 휘발유가격 하락 및 기저효과 완화('20.12월 $\Delta 12.7\%$ → '21.1월 $\Delta 8.9\%$) 영향이 중첩되며 물가기여도 축소($0.95\%p$ → $0.66\%p$)

② 다만, 개인서비스, 공업제품^{석유류제외} 등 근원품목의 물가상승압력은 지속 확대되는 모습

▪ (개인서비스) 원재료비 상승, 최저임금 인상(5.1%↑) 반영, 실손보험료 요율 조정 등으로 외식 및 외식제외 모두 물가기여도 확대($1.06\%p$ → $1.20\%p$)

* 물가기여도(%p, 전년동월비, 12월→1월): (외식) $0.61 \rightarrow 0.69$ (외식제외) $0.45 \rightarrow 0.51$

▪ (공업제품^{석유류제외}) 원재료비 인상,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 등으로 가공식품·내구재 중심으로 물가기여도 확대($0.67\%p$ → $0.78\%p$)

* 물가기여도(%p, 전년동월비, 12월→1월): (가공식품) $0.33 \rightarrow 0.36$ (내구재) $0.14 \rightarrow 0.23$

③ 1월 전월비는 0.6% 상승하였으나, 이는 연초 제품·서비스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반영된 데 기인(통상 1월은 연중 전월비가 가장 높은 달)

▪ 다만, 금년 1월은 공급측 영향 축소, 1분기 공공요금 안정 노력 등으로 전월비 상승폭이 작년(0.7%)에 비해 소폭 축소

□ 2월 소비자물가는 명절수요 소멸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나, 국제유가 상승영향 반영, 개인서비스·공업제품^{석유류제외} 상승세 지속 등 상방요인이 강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전망

○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상승,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

□ 정부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하는 한편, 물가 부처책임제 등을 통해 물가상방압력 지속에 대비한 구조적 물가안정노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

① (농축수산물) 설 명절전 성수품 가격을 안정*시킨 것과 같이 설 이후에도 주요품목 수급관리 지속

* '16대 성수품 + 쌀' 17개 품목 중 '설 민생안정대책' 발표 전(1.5일) 대비 16개 품목 가격 하락(1.28일 기준)

- (농산물) 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대응
- (계란)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, 고시가격인하(△7원/개, 1.21일) 가격 반영 등 가격안정노력 지속

② (석유류·국제원자재) 관계부처 합동 「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」 (팀장: 기재부 1차관)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 및 필요시 즉시 대응

-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이격거리(현 1km) 완화하고,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량 확대 등 추진
- 유류세 인하 조치(~4월)는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 검토

③ (가공식품·외식)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인상시기 연기/분산 요청, 주요 외식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배달비 현황 공개 추진

* (외식) 죽·김밥·햄버거·치킨(4대 관리품목) + 떡볶이·피자·커피·자장면·삼겹살·돼지갈비·갈비탕·설렁탕 등 가격동향 aT 홈페이지에 공개(2.9일~,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) (배달비)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(2월말)

④ (공공요금) 철도·도로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

-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/감면 요청 지속하고,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·지방공기업 인센티브 방안 마련

⑤ (구조적 물가안정)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해 부처별로 소관분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

* 예) 통신비 부담완화, 플랫폼수수료 실태조사, 농축수산물 등 유통·가격결정구조 개선,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, 소비자단체 물가감시기능 강화 등